

'삶의 질 향상' 공공시설 확충

전주시, 올 연말 개관 중화산도서관·건립공사 착수 덕진보건소 등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도 추진

전주시 중화산도서관(가칭)이 시설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관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본격 화되고,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도 추진된다.

국비 30억원 등 총 108억원이 투입된 중화산도서관은 3397㎡부지에 연면적 4042㎡,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중화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영·유아 자료실 △트윈

세대전용공간 △분화강좌실 △다목적 강당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중화산도서관은 그간 완산도서관이 맡아온 전주시 대표도서관 역할을 이어 받아 시민 독서문화 조성 등을 이끌게 된다.

또한 시는 덕진권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덕진보건소 건립공사도 추진하고 있다.

덕진보건소는 명주골네거리 인근(우이동 3가 747-80번지 일원) 3697㎡ 부지에 오는 2021년 7월까지 총 149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961㎡에 지하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에는 진료실과 검사실, 예방접종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향상된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도시개발지구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과 복지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명품신도시로 조성된 에코시티에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85억원을 투입해 체육시설(수영장)과 작은도서관, 주민

문화공간 등을 갖춘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연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한 뒤 오는 202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서부신시가지와 호천지구, 혁신도시 등 서부권 시민을 위한 복지허브역할을 수행할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건립기로 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청소년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10일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청소 취약지를 함께 정비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전주시, 추석 청소종합대책 가동

연휴기간 상황실 등 운영 동별 취약지 일제대청소도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일정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쓰레기 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한 청소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 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기간 과일박스와 스티로폼 등 선물포장 박스의 급증으로 수거지연이 예상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요령과 재활용 불기품목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터미널, 전주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이면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 동별 청소 취약지를 함께 정비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대청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집중홍보도 함께 실시됐다.

민선5시 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석 당일인 9월 13일과 일요일인 9월 15일에는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 후 배출해 달라"면서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하고, 꼭 필요한 음식만 장만하기 등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추석연휴 유용한 생활 정보 '한곳에서'

전주시, 대표 홈페이지·'한바탕 전주' 앱 통해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응급의료 정보 등 통합

전주시는 대표 홈페이지에 추석 연휴 기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생활민원, 교통, 관광시설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은 '추석연휴 통합정보 서비스'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 추석연휴 통합정보서비스(www.jonju.go.kr/chuseok)는 △전주시 종합상황실 △시민불편 해소 △비상의료대책 △관광·체험·행사 △따뜻한 명절 보내기 △교통지원대책 등 6개 분야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전주시는 물론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 정보 등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해 이용자들이 보다 더 손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는 연휴기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을 비롯,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긴급복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보 등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방향을, 가족·친지들과 함께 전주의 즐길거리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관련 주요행사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 웹서비스는 10일부터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한바탕전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만수초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전주시는 10일 전주 만수초등학교에서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과 달리 참석 학부모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듣고 싶은 강의 내용 및 형태, 희망교육 시간대를 파악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육 장소를 자녀의 학교로 선정해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날 교육에는 박주연 건강진흥원 부모교육 전문강사가 '아이들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자'를 주제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생활 적용을 위한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17일과 24일에도 만수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같이 소통하며 응원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자녀의 빛나는 특성과 적성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체적 교육활동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남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아 '사랑의 선물'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철)는 지난 6일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일, 고기류 및 생활용품 등을 전달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능 배워, 나눔 실천'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 센터 이웃사촌방에서 교육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특화교육 활동영상을 통한 과목소개를 시작으로 감사소개 및 과목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입은 기업 지원

전주시의회 문경위, 피해·애로기업 지원 조례 개정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주 지역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 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공동발의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 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을 명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업의 대출 한도액을 기존 3억원 이내에서 5억 원 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주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전주조사

를 실시하고, 수출입 체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전방위적 지원방안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대상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은 "전주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기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필요성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 줄일 방안 찾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기존 팔복동 공업지역의 폐기물 배출·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현황 분석을 통해 오염저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총 7회의 워크그룹을 운영하고,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연

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시설 인허가·관리 등 전주시 환경개선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확대된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의 환경오염문제와 주민과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심권 인근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의 이전 및 휴폐업에 따른 보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칙권에 건의하기 위한 법안도 정비할 방침

이다.

시는 이달 중 일상감사를 시작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 인근 주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회'를 구성하고, 총 3회에 걸쳐 용역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과업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이달부터 확대 지원

만7세 미만까지 6300여명 추가... 대규모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전주시는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달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이 기존 만6세 미만 아동 3만2000여명에서 만6세 이상~만7세 미만 아동 6300여명을 포함한 3만83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됐다. 추가대상아동은 별도

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 이후 보육)을 포함한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교사의 이직이 낮아 환경변화에 민

감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상반기에 개원한 호성동 아이월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어 하반기에는 동산동 재능나래어린이집과 송천동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꿈쟁이어린이집, 호성동 안다육어린이집, 우이동 키즈캐머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5개소를 장

기입대하고, '하나금융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3억 여원을 투입, 평화동 키즈캐머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6개소 더 늘릴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이후 준공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